

성철 스님 어릴적 ‘욕심’ 많았네



성철 큰스님 1·2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서 원택 스님 엮음 | 이태수 그림 일러스트 | 9800원

출생부터 열반까지 쉽고 재미있게 만화로 엮어 유별난 책사랑·출가 계기가 된 책 이야기 ‘눈길’

“어린이 여러분,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살았던 성철 스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성철 스님의 생애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만화 성철 큰스님 1·2>가 출간됐다. 이 책은 성철 스님의 출생부터 열반까지의 이야기가 만화로 그려져 있다.

특히 만화에 나오는 성철 스님의 책 사랑은 유별나다.

스님은 어릴 적 책 살 돈이 없으면 대문 밖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대 어머니를 곤혹스럽게 했다. 스님은 유독

책에만 욕심을 부렸다.

스님이 세상에 대한 의문을 풀고 수행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오도송’이라는 한 권의 불교 책 때문이었다. 스님은 이 책을 만난 경험을 ‘깜깜한 밤중에 햇빛을 만난 느낌’이라고 표현하며 그 감동을 전했다.

이후 출가한 스님은 과거사에서 수행할 당시, 8년 동안 누워 자지 않는 ‘장좌불와’를 하였다. 또한 한국 불교를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 방학을 세우고, 법도를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행동으로 옮기고자 한 ‘봉암사 결사’를

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스님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면다며 소식을 했고, 40년 동안 손수 깨매고 땀만 두 뼖로 살았을 정도로 청렴했다.

이 책에서는 지독할 정도로 강한 스님의 집념, 끈기, 열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어린이들에게 깨닫게 해준다.

어린이들은 이를 통해 ‘공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공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사람과 사람, 부조화와 상생

<소설 관: 인드라의 그들>은 그들처럼 짜여져 있는 사람과 사람간의 사랑과 증오, 원한과 해원, 부조화와 상생의 이야기들이 생과 생을 넘나들면서 진행된다.

스물 세 가지 이야기 속의 20여 명의 주인공들은 각기 나름대로 마음의 길을 찾아 헤매던 수행자들이며, 보이지 않는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실존인물이며,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실감나게 읽힐 것으로 보인다.

<소설 관>은 1권 ‘인드라의 그들’과 2권 ‘허공을 받치는 기둥이 되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 없는 수행의 미로 속에서 주인공들에게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사연들이 눈물과 미소로 어우러져 있다. 또 슬픔과 찬란으로 기묘하게 버무려지는 삶의 과정을 보여준다. 저자 한치선은 소설가로 20여 년을 수행의 길을 걸어왔다.



소설 관 1·2권 인드라의 그들 한치선 저음 연화 | 1만1000원

새로나온 책

■ **고추잡자리** 불교신문사 엮음, 조계종출판사 =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 근심없는 미소는 부처님의 얼굴이요, 마음이다. 교리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함께 나누는 생활, 노력하며 용서하는 법, 슬기로운 지혜를 들려주는 통화가 부처님의 경전이다. <고추잡자리>는 그동안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동화작가들의 주옥 같은 작품이 실려 있다. 박한영의 ‘선재의 거짓말(1998년 가작)’, 김정미의 ‘금두개비(2002년 당선작)’, 배유인의 ‘고추잡자리(2006년 당선작)’에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들어있다.



고추잡자리 박한영, 김정미, 배유인 엮음 | 1만1000원

■ **인연 산책** (서문성 저음, 미래북) = 미리 정해진 업을 면할 수 없다면 어찌해야 되는가, 그대로 앉아서 받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혹은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인과야기들이다. 지금 나의 마음가짐, 말,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인이 되어 어떤 연을 만나게 되면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업(業)과 인연(因緣)을 주제로 불교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철학들을 선별하여 엮었다. 과거 고승을 이야기와 예화들을 들려주고 그로부터 업과 인연, 그리고 인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인연산책 서문성 저음 | 9,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바다를 삼킨 물방울
- 사랑경
- 산빛 물든 사람들
-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
- 인연산책

불자서, 주원법장, 9000원
성문, 김두해, 1만원
여시아문, 정과스님, 1만원
민족서, 김광서, 1만2000원
미래북, 서문성, 9,000원

도서주문 (02)2004-8219

아난존자 ‘일기’ 속 부처님과 제자들



아난존자의 일기 1·2권 원나사리 저음 범라스님 역 운주사 | 2만18000원

석가모니 부처님을 25년간 시봉하여 불경을 기록하는데 가장 현명한 공로를 세운 아난존자. 부처님의 10대 제자이며 속가 사촌동생이기도 했던 아난존자는 유독 연민과 자비심이 많아 인간적 체취가 물씬 풍기는 수행자였다.

이 책은 아난존자의 출가 전후의 수행 및 부처님 시봉 생활, 그리고 경전 결집과 깨달음의 과정을 그렸다. 즉 아난존자가 열반에 들 때까지 일생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바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일기의 기록이다.

이 책은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의 수행을 일기라는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독특한 책이다. 이 책 읽으면 부처님 일생은 물론이요, 부처님 주변 인물들의 가슴 뭉클한 삶을 구석구석 여행할 수 있다.

원래 2000년에 발간된 이 책은 이번에 개정되면서 총 4권에서 2권으로 묶였다.

저자 원나사리 스님은 미얀마 불교의 종교성 원로회의에서 한동안 활동하였으며, 여러 불교 잡지에 활발한 기고활동을 하였다. 아담답고 간결한 문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집필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만화로 보는 진본서유기 1~3권 오승은 저음 | 조태호 그림 맑은소리 | 9800원

‘서유기’ 제대로 한번 읽어볼까

“서유기를 세 번 이상 정독한 자가 아니라면 그와는 극기(克己)와 수기(修己)를 논하지 마라.” 서유기를 만화로 그린 조태호씨의 말이다.

<서유기>는 오승은(1500~1582)의 작품으로 삼장법사라는 고승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대승경전을 가져오기 위해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와 멀리 천축국을 찾아가는 모험이야기다. 삼장법사 일행은 여행 중에 수많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지만, 용감하고 지혜롭게 차례차례 요괴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이 즐거워진다.

<서유기>의 내용은 자신을 잃고 헤매기 쉬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현명함, 믿음, 의지, 용기임을 알려준다. 그래서 옛날부터 <삼국지>는 청소년기에 읽고, <서유기>는 장년에 읽는 책이라고 했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에 급급하기보다, ‘당연히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서유기>를 읽어야만 하는 이유다.

그러나 어렵고 읽기 불편한 고전을 완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만화로 보는 진본 서유기>는

만화라는 장르의 특성을 살려 딱딱한 문장의 나열보다는 생동감 넘치는 그림과 감각적인 문체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따라서 읽기에 부담도 없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만화가 조태호씨는 압축적이면서도 직설적인 그림과 함께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한 구성을 선보인다. 또한 진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재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기에, 흥미 위주의 모험담에 초점을 맞추거나 새롭게 스토리를 재구성했던 여타의 만화들과는 달리 소설을 대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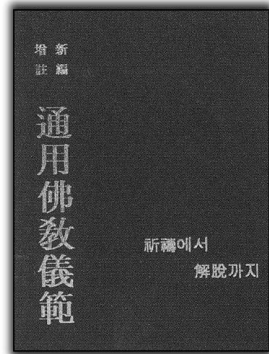
때문에 많은 독서량을 필요로 함에도 시간에 쫓겨 허덕였던 청소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작품이며, 경제·경영·처세 서적에 지친 성인들에게도 역시 권장할만한 작품이다.

<만화로 보는 진본 서유기>는 <서유기>의 진정한 ‘저자’로 공인받은 진본에 충실하면서도 작가 특유의 재치와 재기발랄함을 놓치지 않아 수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재미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만화 <진본서유기>는 10권까지 나올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과에 의한 윤회를 받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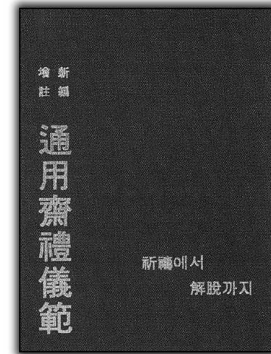
- 제1장 승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편의식
- 제8장 제불보살 파발의식
- 제8장 점안편
- 제9장 이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編·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송 법전이 한정되고 고개 속에 인사를 올립니다. 소송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간 만물지중에서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중에서 유인이 가장 最貴 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義)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禮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 따로 참으로 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兩)입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제4장 四十九齋
 - 제5장 재공편
 -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禮
-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정형 영산대제 괘불이운 권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상칠재(修十王生七齋)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